

2024년 12월 30일

고려아연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세 번째 서한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우선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에 다행히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현재 경영진과 이사회에 지지를 요청드리고자 세 번째 서신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 M&A에 승복할 것인지, 아니면 현 경영진에게 주주 이익과 회사 성장을 극대화하는 여정인 “트로이카 드라이브(Troika Drive)”를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먼저 주주 여러분께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몇 가지 주요 고려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임시주주총회 주요 안건

“지배구조 강화 및 주주 권익 보호”

2024년 12월 10일자 첫 번째 주주 서신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고려아연 이사회는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주주 친화적이며 주주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의안들을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들이 이사회와 다양성과 독립성, 투명성, 감독 기능을 더 강화하고 주주들과 소통을 개선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1. 집중투표제도 도입

제안한 집중투표제 하에서 주주들은 이사 선임 수에 상응하는 복수의 투표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주주들은 이 투표권을 한 후보에게 집중하거나 또는 여러 후보에게 분산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수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여 소수주주가 회사 이사회에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여러 견해를 가진 다양한 이사들로 구성되어 더욱더 균형이 잡히고,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를 토대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집중투표제 도입은 소수주주가 회사 이사회 구성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수주주들이 투표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인을 제공하리라 기대됩니다.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매커니즘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소수주주 권리 보호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 이사회 최대 인원을 19 명으로 제한

고려아연은 다가오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수 주주들의 지지를 받으면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 수를 최대 19 명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 의안은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정합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까지 포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사회 인원 상한 설정은 이사회 구성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고, 이사 선임에 관한 모호성을 줄이며, 향후 과도한 인원 확장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등 회사의 지배구조 틀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MBK 와 영풍이 제안한 14 명의 이사 추가 선임 안건이 승인되면 이사회는 30 명에 가까운 인원으로 불어나게 되어 국내외에서 유례없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규모가 될 것입니다. 반면, 이사 수를 19 명으로 제한하는 고려아연의 제안은 글로벌 거버넌스 자문사들의 권고에도 부합합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은 이사회 인원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이사의 책임과 권한이 약화되고 이사회 의 심의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1 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가장 일반적이며, 유럽에서는 평균 이사회 규모가 13 명 내외입니다.* 기존 13 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고려아연이 추천한 7 명의 후보와 함께 MBK 와 영풍이 추천한 14 명의 후보를 추가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 규모는 총 34 명으로 늘어나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지나치게 크고 비효율적인 이사회’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3. 사외이사 후보 7인 추가 선임의 건

당사는 국내외 외부 전문 기관의 자문을 통해 잠재적 이사 후보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사회 의 다양성을 증진하면서 역량을 강화할 이사 후보들을 평가하여 최종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중 하나로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은 외국 국적 이사 후보 선임을 제안했습니다. 이 조치의 목적은 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글로벌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가 회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고려아연의 글로벌 위상 강화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재무, 기술, 리스크 관리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이사 후보로 추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분야의 이사들이 이사회에 진입함으로써 이사회에 다양하고 전문적인 관점이 추가돼 궁극적으로 이사회가 더 합리적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회사가 제안한 7 인의 사외이사 후보에 관한 사항

이름	학력	현재 직책 및 이력
이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UC 버클리, 화학공학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엔컴퍼니, 사외이사* SSG.COM, 기타비상무이사 교보생명, 사외이사(감사위원회) 현대카드, 사외이사(리스크관리/감사/보수위원회)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 한국 대표 맥킨지 & 컴퍼니, 서울/뉴욕 사무소
이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괴팅겐대(독일), 법학 박사 한양대, 법학 학사 및 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도시가스, 사외이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법무법인 도하,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코스닥협회, 자문위원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김경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컬럼비아대, 경영학 박사 위스콘신대, MBA 서울대, 영문학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진, 사외이사*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겸 교수* 대성합동지주, 사장 (대성홀딩스에 합병) 디큐브시티, 대표 CJ그룹, 전략기획총괄(부사장)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장(전무)
James Andrew Murphy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국립대, 공법 석사 시드니대, 법학 학사 뉴사우스웨일스대, 경제학 및 역사학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리버 와이만, 수석 고문* 퀸즐랜드주, 전 아나스타샤 팔라스추크 주총리 비서실장 퀸즐랜드주, 재무 책임자 ANZ 은행, 전략 및 정책 담당 임원 호주 총리실, 전 케빈 러드 총리 비서실장 호주 연방 재무부, 시장 그룹 차관보 (호주 정부로부터 공무원 훈장 수여) 국제통화기금(IMF), 고문
정다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 경영학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니드, 사외이사* 명지대학교, 경영대학장/경영대학원장 *

이름	학력	현재 직책 및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화여대, 경영학 석사 이화여대, 영어영문학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WCD 코리아, 전략&홍보분과 위원장* 한국수출입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회계학회, 부회장(기획)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이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오와주립대, 컴퓨터 공학 석사 및 박사 연세대, 전자공학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드잇, 사외이사* 엔젤스헤이븐(사회복지법인), 이사*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원로회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전기전자공학과 초빙 석좌교수*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명예교수* 울산과학기술원(UNIST), 부총장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획위원, 5G전략추진위원회 위원장, 기가코리아재단 이사장
최재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리노이대, 전산학 박사 서울대, 컴퓨터 공학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KAIST, 김재철 AI대학원 교수* KAIST, 김재철 AI대학원 성남연구센터장/설명가능인공지능연구센터장* INEEJI, 대표이사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포스코, 철강 전문 교수 UNIST,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장 UN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부교수

참고: *는 현재 직책, 그렇지 않은 경우 과거 주요 경력을 나타냄

4. 집행임원 제도 -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의견은 적극 수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은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도 적극 검토하는 등 높은 개방성을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2024년 12월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MBK와 영풍의 집행임원제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집행임원제 도입 제안에 대한 의도가 서로 다를 지라도 집행임원의 책임감과 전문성,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안이라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MBK와 영풍은 언론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집착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조차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임원 제도는 미등기임원에게 집행임원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이사회의 효율성과 감독기능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입니다.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과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항상 열린 자세로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MBK와 영풍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회사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5. 발행 주식 10:1 액면분할

주주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두 차례의 공개매수 과정을 거치면서 유동성 제약이 커졌고, 이로 인해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전체 주식 수의 약 16.6%로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집단이 고려아연의 지분을 시장에서 계속 매입하면서 유동성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0:1 액면분할을 실시하면 유통 주식 수가 크게 증가하여 유동성이 개선되고 주주 기반이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접근 가능성이 커져 향후 고려아연의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소액주주 보호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과 이사회는 대한민국 상법과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가 단일주주 및 소액주주로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직무집행, 재무상태 및 기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 설명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설명이 회사의 이익 또는 주주의 공동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그로 인하여 회사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할 것입니다.

이는 국제 표준에 따라 공정한 대우, 기업의 책임성, 투명성 강화를 보장하는 동시에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갈등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고안된 제도입니다. 또한 소액주주가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며,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7. CEO와 이사회 의장직 분리

우리나라에서는 동일인이 CEO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현재 저 또한 CEO와 이사회 의장, 두 가지 직책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주주 및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CEO와 의장의 역할을 분리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사회를 이끌며 회사의 전략적 방향을 심사숙고하고 제시하는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CEO와 이사회 의장직 분리, 즉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건 이사회 독립성과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회사가 주주가치 극대화에 몰입해 일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8. 이사회 결의에 따른 배당 기준일 변경

고려아연은 이사회 결의와 2 주 전 공시를 통해 배당 기준일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배당금 수령 목적의 주식 보유 기간에 대한 주주 혼란을 줄이고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와 관계 및 신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배당 일정 변경에 따른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배당 발표 기간 전후로 고려아연의 주가를 안정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분기 배당 지급 전환

현재 고려아연은 연 2 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분기 배당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안건이 통과되면 주주들은 연중 배당금을 더 자주, 그리고 더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해당 안건은 고려아연이 높은 재무 안정성과 뛰어난 현금흐름 창출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아가 분기배당 도입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주식 매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침글

위에서 말씀드린 주주총회 안건들은 고려아연의 현 이사회와 경영진이 주주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헌신하겠다는 확고한 약속과 다름없습니다. 고려아연의 현 이사회와 경영진은 앞서 말씀드린 안건을 실행함으로써 주주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더 경청하고 주주 여러분의 권익이 한층 더 보장되고 확대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지난 50 년 간 그래왔듯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주 여러분에게 그 성과를 보답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5 년 1 월 23 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여러분의 결정을 겸허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려 아 연 주 식 회 사
회 장 최 윤 범

